

나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어요
 어느 날 죽은 이의 결혼식을 보러
 갔지요, 라고

신랑은 심장을 도려냈어요
 (자궁) 만 이 ^{생명력} 튼튼한 신부는 신랑의 심장
 자리에 ^{여생}
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

신랑의 심장 자리에 신부의 자궁은 ^뱀
 새우처럼 굴러 있고 있었습니 다
 = 뱀. 주로 옥슬 때 쓰이는 작은 새우 ^{글자, 여러개의 방면}
 위해서 비쳐나가지 않으려고 베틀은 모양새라고 생각함

아직 지상에 있을 때 신랑이
 소공동 어느 상가에서 산 반지처럼
 먹 새우처럼 ^{50-70년대 고급주택복잡거리}
 자궁 = 반지 = 먹새우 = 굴러다 = 신부 = 신랑 심장에 굴러 있음.
 → 신랑이 무릎 꿇고 신부를 이끄는 모습

그렇게 굴러 있던 신부를 나는 보
 았지요

검정 개울에 햇을 풀이 자라나고
 물가에 자라는 풀. '자라나는'은 '양조하기' 위해 '햇'은 덧붙인 듯

20x20

술 실 은 자 전 거 를 타 고 밤 이 달 을

쿨 리 며 결 혼 식 장 으 로 오 고 있 겠 어 요

나 는 다 시 노 래 를 할 수 있 어 요

어 느 날 죽 은 이 의 결 혼 식 장 에 서 나 는

낯 장 세 이 끌 리 듯 누 려 술 을 마 켜 노 ,

라 고 밤 이 오 고 있 겠 다 는 데 '낯 장 세 이 끌 리 듯' 이 라고 표현 한 것이 낯 선 다.

허 수 경 , 「 나 는 어 느 날 죽 은 이 의 결 혼
식 을 보 러 갔 는 니 다 」

- 그대, 술, 달 등의 시어를 구체적으, 내 감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. 허수경 시인의 시어
(MP를 읽고 자기만을 위한 노래/이야기를 하는것?)

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 것 같 다.

-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시장을 '죽은 이' 라고 표현한 것은 감명 깊었다.

20 21 . 3 . 2 3 .